

[바둑]

‘와신상담 3년’ LG배 기필코 되찾는다

‘한국팀 희망’ 조한승·홍민표 12일 광주시청서 동반 출격

빼앗긴 LG배 타이틀이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까.

한국은 지난 1997년 LG배 1회 대회 때 이창호가 우승을 차지한 이래 지난해까지 10회 대회가 열리는 동안 4회 연속 우승(2001년~2004년)을 포함 6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한국의 독주가도에 제동이 걸린 때는 지난 2005년. 일본의 장수 9단이 중국의 위빈 9단을 꺾고 패권을 가져간 것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구리 9단과 천아오에 5단이 대한민국 남북관에서 LG배 패권을 다투는 등 한국에겐 치욕의 국제대회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이창호와 최철환, 박영훈 등 내로라하는 ‘우승 청부업자’들이 올 11회 대회를 겨냥해 투구꾼을 고쳐썼으나, 모조리 예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조한승(25) 9단과 홍민표(23) 5단이 ‘인의장막’을 뚫고 준결승에 진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위기의 한국호’를 어깨에 짊어진 그들이 오는 12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제11회 LG배 세계기왕전에 동반 출격한다.

조한승 9단의 LG배와의 인연은 ‘와신상담’



〈조한승 9단〉



〈홍민표 5단〉

명인전 4연승 등 승승장구 “이번엔 4강진크스 털겠다”

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7, 8, 9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무려 4차례나 준결승에 진출한 것이다.

아직까지 우승 경력 없지만 中 구리 꺾은 ‘무서운 신예’

국내 랭킹 5위인 조 9단은 준결승 파트너인 중국의 후아오위(25)를 꺾고 결승에 진출, 대망(大望)을 달성함과 동시에 ‘4강 징크스’를

털어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배수진을 치고 결전에 나서는 조 9단은 지난해 열린 8강전에서 전기대회 준우승자인 천아오에 5단을 꺾은 데다 최근 명인전에서 4연승을 거두는 등 기파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국제대회 4강에 진출한 홍민표 5단은 ‘사고칠’ 가능성이 높은 신예기사.

지난해 8강전에서 중국의 1인자 구리 9단을 셋아웃시키며 한국바둑의 히어로로 떠올랐다. 올 5단은 각종 기전과 한국바둑리그 등에서 활약했으나 아직까지 우승 경력은 없는 신예다. 지난 2003년 제5회 농심신라면배와 2004년 제9회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한 것이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거둔 유일한 성적.

하지만 지난해 그의 활약을 지켜본 바둑인들은 대만의 저우쥔신을 꺾고 LG배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올 5단은 지난해 ‘홍민표가 살아야 KIXX가 이긴다’는 새로운 격언이 바둑계에 나돌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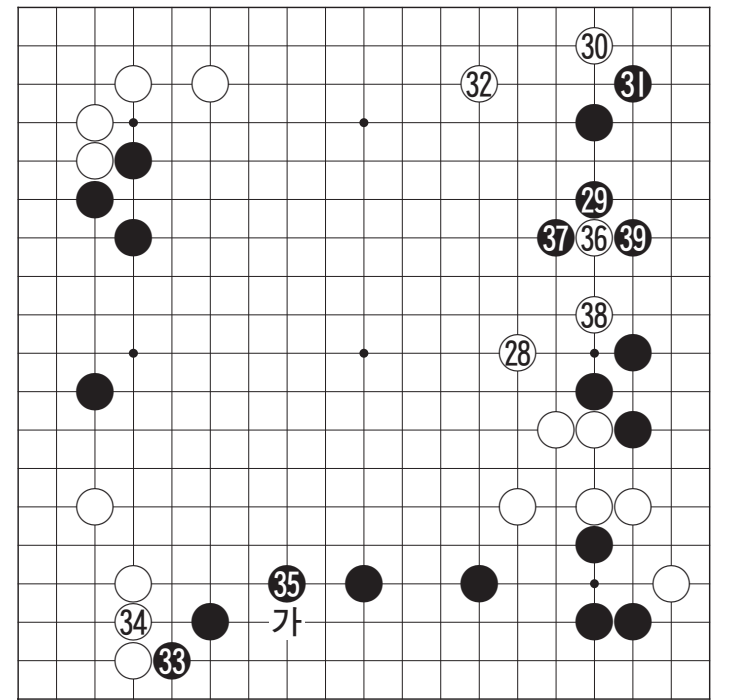
특히 중국 바둑계의 불투명 구리 9단과의 대국 내용이 그의 실력을 말해준다. 그는 지난해 이 대회 8강전에서 구리 9단에서 맞서 대망이 몰살당한 국면을 맞고도 승부의 몰골기를 되풀이하는 독심을 발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회 광주교유기반 바둑대회 중등부 결승전

白 윤영희 (비우종)

黑 권재구 (문성종)



윤영희군은 제1회 전남도지사배 어린이 최강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백 28은 당연하면서도 절제의 기이며 이 정석의 완결점이다. 흑 29도 절제의 지킴이다.

이때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상당히 지루한 장기전의 양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윤영희군이 백 30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수는 신작을 떠나서 윤군이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흑 31은 가장 알기 쉬운 응수다.

권재구도 질세라 흑 33으로 붙이고 35로 발목을 박는다. 이 수는 백이 ‘가’로 침입하는 수를 방지한

큰 수였다. 이렇게 지키고 보니 백 30으로는 바로 ‘가’에 침입해야 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하변이 커졌다.

윤영희군이 36으로 부딪혀간 것은 평평한 구도를 흔들어 보려는 응수타진이다. 응수타진이란 상대한테는 곤혹스러운 질문이지만 던진 사람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이 매력이다.

과연 권재구군은 37로 과감하게 꺾은 다음 39로 담백 미끼를 물었다. 순간 윤영희군의 눈이 번쩍 빛나더니 의지를 바둑 끌어당기며 바둑판을 노려본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군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규환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추락하는 이창호... 그에게 무슨 일이!

한국바둑의 간판이자 세계 바둑계의 제왕으로 군림해 온 이창호가 친체의 눈에 빠졌다.

지난 해 이창호는 국내기전 4관왕에 머물렀을 뿐 국제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삼성화재배마저 놓쳤다.

게다가 그는 2006 바둑대상에서 MVP를 이세돌에게 내주어야 했고, 2월 랭킹에서는 14개월 만에 역시 이

세돌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2007년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팬들의 눈길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창호의 부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주변 환경이 이창호의 독주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창호와 나머지 기사들 간의 실력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창호 개인의 문제.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은 어느덧 30대에 이른 그의 나이. 이창호는 11세에 입단해 21년 간 바둑만을 두어 온 사람이다. 따라서 물리적 나이를 떠나 ‘사회 나이’로만 따져도 그는 이미 중년에 이르렀다. 일인자 세월만 십 수년. 기세가 아닌 이슬 술 바둑판에 질릴 때도 왔다는 얘기가.

그러나 지난 2000년 최악의 해를 보냈던 이창호는 이듬해 불사조처럼 되살아났다. 국제대회 2회 우승을 포함해 6관왕. 정상으로 돌아온 이창호는 보다 격렬하고 거친 바둑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2007년 이창호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꾀할 것이다. 김성룡 9단은 “이창호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이창호는 끝나지 않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작년 국제대회 ‘무관왕’ 전락 프르기사 랭킹 1위도 빼앗겨

보냈던 이창호는 이듬해 불사조처럼 되살아났다. 국제대회 2회 우승을 포함해 6관왕. 정상으로 돌아온 이창호는 보다 격렬하고 거친 바둑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2007년 이창호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꾀할 것이다. 김성룡 9단은 “이창호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이창호는 끝나지 않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Megabox Day

엔터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최강로맨스

대인부동산컨설팅

금보부동산컨설팅

인애공인중개사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법원경매 (주)옥션코리아